

국산 골판지 상자의 탄생: 포장시험실

1976

디자인진흥원사

- 제4대 김희덕 이사장 취임
-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에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 (대통령령 제8249호)
- 포장시험실 설치(공작실 명칭 변경)

한국 디자인사

- 『뿌리깊은 나무』 창간
- 『로버트태권 V』 개봉
- 월간『디자인』 창간
- 김교만 첫 개인전 『김교만 작품전』 개최
- 대우 기업PR 광고 시작

한국 사회사

- 3·1 민주구국선언
-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수출 진흥이 강조되던 1970년대 초, 한국 정부가 각종 수출 진흥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상품은 주로 경공업 제품(보세 가공품 및 메리야스, 스웨터, 면직물, 생사, 가발, 인조 눈썹 등)에 국한됐다. 수출 상품의 포장 역시 목상자와 마대에 의존하는 수준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이러한 낙후된 한국 포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 직후 한국수출품포장센터가 가동하던 근대식 생산 시설을 인수해 시범 공장을 세우고 포장재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포장재를 생산, 공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의 생산 시설과 기술력으로 만들 수 없었던 포장재(수출용 골판지 상자,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 필름백, 완충 포장재 등)를 공급하고, 부자재(검테이프, 라벨, 재봉사, 미싱 부속, 바늘 등)를 구입해 필요한 기업에 유통함으로써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시범 생산을 통해 포장재를 개발하며 국내 포장 산업의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수출용 골판지 포장재를 개발하고자 여러 실험을 강행했다. 초기에는 양질의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재료로 사용하는 크라프트 라이

너(Kraft-Liner)와 중심지(Medium Paper)를 해외에서 수입해 충당해야 했다. 1970년 10월 1일 부산 지역에도 사무소를 설치해 골판지 상자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출용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늘어나자 원활한 공급을 위해 1973년 2월 부산지사에 가공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수출 상품의 고급화에 따라 골판지 상자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79년 6월 프레소 홀더 글루어(Flexo Folder Gluer)기를 도입했고, 상자를 완성하기 위한 5단계 공정을 2단계로 줄이며 포장업계의 시설 근대화를 꾀했다.

1976년 11월 설치된 포장시험실은 시범 공장과 함께 국내 포장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시행한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중소기업들은 고가의 포장 시험 기기를 구입하기 어렵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장 분야의 전문적인 시험, 분석을 통한 포장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포장시험실은 유엔개발 계획처(UNDP)의 지원으로 충격 기록계, 다목적 시험기 등 각종 포장 시험 관련 장비를 도입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의 포장 관리 및 품질 개선에 힘썼다. 또한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들을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포장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골판지 상자에 쓰이는 중심지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를 이룬 것도 1976년의 일이다.

이후 국내에서도 점차 민간 기업에 의한 포장재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포장재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의 역할은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1980년대 말까지 국내 포장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KIDP가 기여한 바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포장시험실은 1994년 10월 수출업체 등 수요 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범사업본부로 이전해 포장 재료 시험, 식품 포장 시험, 화물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험 기기 90여 종을 활용한 주요 실험 데이터를 제공했다.